

고은 불교 대하소설

싸우는 세상

그런데 아귀의 세계로 가게된 것이 그 이유를 모르는 반전(反轉)으로 다시 아수라의 세계로 태어난 것은 사바세계의 시간으로는 1년도 넘어서었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불이와 합두는 아홉마을에서 각각 일정한 시간(時差)을 두고 태어났는데 피루성이었다. 둘은 다같이 자신들이 피루성이로 태어난 까닭은 어머니의 몸 속에 두 싸움꾼이 서로 칼부림으로 싸웠으므로 어머니의 몸은 피로 물들어 죽었고 그 몸 속에서 가까스로 산 육신이 되어 태어난 아기도 피루성이었다.

특히 합두는 너무 피가 엉겨붙은 나머지

림이 아닐 때에는 달이나 돼지 그리고 들개와도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아수라의 세상은 언제나 싸움이 없는 때가 없었다. 6도(六道)의 한 세상이거나 8부중(八部衆)의 하나이다. 또한 10계(十界)의 하나일 경우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 불의 10계가운데 한 세계이거나 이런 경우 그 세계는 일정한 세계이기보다 인간계나 지옥계나 아귀 축생계에 널리 넘나드는 생명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심지어 천상계의 어느 구석에도 아수라가 올라가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 조향숙



수미산

39

눈을 볼 수 없는 소경의 갓난아기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합두의 아버지인 수군(水軍)의 장교는 그가 근무하는 진(鎭)에서 풀이와 갓난아기 합두를 보고 그 아기를 마을 밖의 허드레 우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가노(家奴)인 남정네가 그 아기를 안고 가서 우물에 넣기 전에 거의 폐경(廢井)에 가까운 그 낡은 우물 밑의 얇은 물을 다 마신 뒤에 거기에 내려놓고 돌아왔던 것이다.

과연 이 10계란 불보살과 중생이 하나의 커다란 세계로 망라된 것이어서 부처와 중생의 차별 자체가 차별이 아닌 바를 일깨워주는 것이었지 모른다.

까마득한 옛 인도에서는 오직 전투를 일삼는 귀신이 바로 아수라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아귀는 인드라(釋提桓) 신(神)의 위력에 들이 불만을 품고 언제나 그 인드라신의 세력과 싸우는 일 없이 살 수 없었다. 아니 몇번이나 죽었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피루성이로 칼을 휘둘러대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남정네의 아내가 밤중에 그 우물에 내려가 마구 물어대는 아기를 깨우고 올라 온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물의 깊이가 사발이 오르내릴 수 있게 밑에 흙이 붙어있었고 우물 벽의 물결이 손발이 의지할만한 돌출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 아수라의 악귀에게는 아수라금(阿修羅鎗)이 있었다. 그 거문고는 아수라가 문득 싸움이 아닌 것 즉 평화에 대한 생각을 낼 때마다 그 벽면에 의해서 누가 연주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울려주는 놀라운 거문고였다.

그때서 이 갓난아기 합두는 하인네의 팔로 지라났고 그 집 주인의 딸로서는 태어나지마자 죽은 것으로 되어야 하였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그 집 주인 수군 천부장(千夫長)으로서의 장교는 아홉마을인 악소곡과의 밤삼한 정령으로 바다 위에서 합두 대부분이 파괴될 때 전사(戰死)하였다. 언제나 정령이 그럴 날이 없는 시대가 그 뒤로도 그렇게 모르고 이어졌으므로 이번에는 그 승전국 가졌던 작은 나라가 동방 폐허가 되는 대 반격이 있었고 이 정령에 동원된 어린 합두의 양부인 노예조차 징발되어 다리 공사를 하던 중 적의 화살에 맞고 죽은 것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그때서 합두는 어찌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그 어린 시절도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놀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화지성의 용이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한탄해서 그 마명의 가국을 금지시켰던 것이다. 바로 이 가국에서 마명은 아수라금이 절로 가국의 음조에 맞추어 그 요묘한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들내에 나간 소녀 합두가 사나운 미친개와 싸우고 있을 때 어디서나 아수라금의 소리가 들려와서 합두도 미친 개도 함께 싸움을 그치고 한동안 그 거문고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아니." 하고 다시 감탄한 합두가 물었다. "이름이 알고 싶어요." "불이라 합니다." "아아 이 이름조차 거문고 소리의 아름다움과 하나입니다." "이 거문고의 이름은 바로 아수라금입니다." "아수라금! 아수라의 싸움판에도 이런 아름다운 악기가 있다는 것이 아수라 중생에게는 커다란 구원(救護)입니다."

그것은 아수라계 뿐 아니라 그밖의 중생계 전체에 대한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아수라에서의 싸움은 하루내리 서로 치고 맞고 치고 맞는 일을 되풀이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니 그 싸움은 어느 한 동안이나 쉬는 일도 전혀 허용될 수 없었다.

이런 싸움이 그 싸움의 열이 더하도록 이어져 가기를 한없는 세월로 보내는 동안 그 난폭한 싸움으로 죽지 않고 그 싸움으로 인한 고통에 동부림치면서 계속 싸워

사나이는 결코 죽지 않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계속 두마리 악어와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싸움은 거의 방어적이었지만 이때쯤 사나이 쪽에서 악어의 등매기를 치다가 그의 주먹이 등매기의 사나운 들기부둥이 뿔러 다시 피가 나오고 악어의 등매기의 그 단단한 겹질도 굵이 굵으로써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었다.

누가 이 싸움을 아수라계의 현생(現生)만의 싸움이라 하겠는가. "저쪽을 보아요"하고 합두가 불이와 등짝을 날카로운 열개의 손톱으로 그려대면서 외쳤다.

과연 아수라는 피의 세상이다. 불이와 합두도 계속 싸우다 서로 박치기를 하게 되었다 "앗" 그때 불이가...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로 그 거문고를 들고 오는 아수라 중생이 소년 불이었다. 합두는 그 소년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아니 소년도 이 괴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소녀가 어딘지 낯익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합두가 말하였다. "아무튼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칸 어울려 싸워봅시다. 싸움이 인사이고 싸움이 친구이고 싸움이 사랑인 이곳에서는 싸움만이 본분(本分)이 아닙니까?" "본분이든 허깨비든... 그렇다면 싸워봅시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로 그 거문고를 들고 오는 아수라 중생이 소년 불이었다. 합두는 그 소년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아니 소년도 이 괴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소녀가 어딘지 낯익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합두가 말하였다. "아무튼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칸 어울려 싸워봅시다. 싸움이 인사이고 싸움이 친구이고 싸움이 사랑인 이곳에서는 싸움만이 본분(本分)이 아닙니까?" "본분이든 허깨비든... 그렇다면 싸워봅시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하고 소녀 합두는 피멍이 든 몸 안에 이상한 광기가 차는 것이어서 그 거문고 소리에 감탄을 할 수 없었다.

로 그 거문고를 들고 오는 아수라 중생이 소년 불이었다. 합두는 그 소년이 어딘지 낯이 익었다.

아니 소년도 이 괴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소녀가 어딘지 낯익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합두가 말하였다. "아무튼 이 세상은 싸우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칸 어울려 싸워봅시다. 싸움이 인사이고 싸움이 친구이고 싸움이 사랑인 이곳에서는 싸움만이 본분(本分)이 아닙니까?" "본분이든 허깨비든... 그렇다면 싸워봅시다."

어린의 눈 건너에는 인간을 닮은 두 아수라가 창과 칼을 가지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찌르고 찌고 찌르는 처절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과연 아수라는 피의 세상이다. 어디서나 붉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붉은 피의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서인지 수레 검은 피를 토하는 속도 있었다.

어디를 보나 이렇게 처절한 싸움판 뿐이어서는 어떤 특해도 같은 사랑과 우정이 있는 싸움의 모양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그들은 서로 합친 얼굴과 어깨쪽의 상처의 핏자국 따위로 화를 풀다가 문득 그들의 열을 쳐다볼 수 있었다.

"아!" "아!" 그들의 열은 바로 눈이었다. 눈에는 두 마리의 악어가 있는데 바로 그 악어와 싸우고 있는 사나이가 있었다. 물론 사나이는 악어에게 이미 한쪽 손목을 잘려버렸고 악어가 들이받은 일구리는 구멍이 뚫려서 피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피가 그 몇천년 동안 그대로인 눈속에 반짝 눈물이 함께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출혈에도 불구하고

그때 불이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왔다.

법회 안내

제2기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제2기 불교 기초교리 무료강좌를 실시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기간: 2개월 과정(8회 강좌)
9월 3일(음 8월 9일)부터 10월 29일(음 9월 6일)까지
매 일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강좌)
* 위 기간 중 9월 10일(음 8월 16일)은 연휴로 휴강.
* 필기도구 지참. 교재 및 수강료는 무료.

목요 정기 법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9월 14일(음 8월 20일)부터 매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유마경', '승안경', '금강경', '농엄경', '원각경', '법화경' 순으로 법회를 진행합니다.
* 월 회비는 20,000원으로 법문 녹음 테이프 대금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금요 정기 법회

현재 금요 법회(매 금요일 오후 2시~4시)의 강의는 원각경으로 8월말로 끝을 맺으며 9월 금요법회부터는 '법화경' 강의를 실시합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02-720-3245~7

대한불교조계종 진여회

판례를 보내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국가 법령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각종 제도를 포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불교 관계 판례·문답집"과 "불교 판례모음집"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는 △님이나 사찰 단체는 그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사소해보이는 자료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실 자료: 판결문 전체(사건 번호, 판결법원, 사건명, 소송 당사자, 판결 내용, 재판 관여 법관 등)

보내실 곳(문의하실 곳):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전화: 02-733-4749, 732-9342
팩스: 733-8285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 ◎ 자서전 ◎ 회고록 ◎ 출판대행
- ◎ 수필집 ◎ 시집 ◎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대한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귀담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은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람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영구동 37번지 2층 선유빌딩 3층
전화: (02)725-6752~4
팩스: (02)725-6920

도서출판 사람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 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 | | |
|--------|------|---------------|
| 본사 | 대표 | 02-737-8881 |
| | 팩스 | 02-737-0697 |
| | 광고국 | 02-737-0692 |
| | 전화신청 | 02-737-0693 |
| 부산지사 | 전화 | 051-634-5114 |
| | 팩스 | 051-634-5188 |
| 대구지사 | 전화 | 062-375-9966 |
| | 팩스 | 062-371-7544 |
| 대전지사 | 전화 | 053-427-8008 |
| 경기지사 | 전화 | 032-613-4027 |
| | 팩스 | 032-665-0965 |
| 충청남도지사 | 전화 | 0631-281-2534 |
| 충청북도지사 | 전화 | 0416-856-3280 |